

고하선생 탄신 123주년 추모식

추모사

“강토는 잃었다 하더라도 삼천만 민중의 심중에 응집된 국혼의 표상은 경술국변(庚戌國變) 이래로 망명지사의 기혼(氣魂)과 함께 해외에 엄존하였던 바,

일본의 정권이 퇴각되는 이 순간에 있어서 이에 대위될 우리의 정부 우리의 국가대표는 기미독립 이후로 구현된 대한임시정부가 최고요 유일의 존재일 것이다.”

이는 해방 정국의 혼란한 상황에서도 파당을 초월하여 임시정부를 환영하고 이를 지지하고 이에 귀일함이 타당한 대의명분이라 역설하신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선생의 임시정부 계승에 대한 생전 말씀이십니다.

오늘, 선생님의 탄신 123주년을 맞아 선생님의 높은 뜻을 기리며 추모의 예를 올립니다.

한말, 항일 의병장이셨던 기삼연 선생으로부터 한학을 깨우치신 선생님께서는 일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이듬해 중앙중학 교장에 취임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는 데 남다른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중앙중학은 3.1독립운동의 모의처로서 선생님께서는 당시 독립운동의 사전 계획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으며, 그로인해 1년 반의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출감이후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하신 후, 30여 년간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셨으며,

8·15 광복 이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와 맞서 민족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한국민주당을 결성,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선생님께서는 평소 소망하셨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날을 끝내 보지 못하시고 1945년 12월 말, 저격범의 흉탄에 의해 서거하시고 말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서거하시기 전날까지도 임시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회담을 통한 반탁의 방법 문제를 논의하셨던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영전에 서서 보니 새삼 남북의 현실이 걱정되는 비감이 서려 옴을 느끼게 합니다.

근래 들어 '1948년 광복절'을 '건국절' 운운하거나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며 선생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임시정부의 활동을 비롯하여 항일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행동을 보이며,

공공연히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이들을 보면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그간의 행보를 물거품 되게 하는 남북관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영유권 망언을 계속하는가 하면,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은 물론, 정치가들까지 나서서 이웃나라 민족을 도탄에 빠뜨렸던 반인륜적 범죄자들이 잠들어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여 전범을 기리며, 침략전쟁을 미화하며 결속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들은 모두 선생님과 같이 자주독립과 민족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그르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겨레는 남북한 대결구조를 하루빨리 종식하고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 일본의 망동에 공동 대처하며, 겨레의 숙원인 통일을 향해 매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겨레의 스승이신 고하 선생님이시어! 남북으로 갈린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부디 겨레의 숙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음우하여 주시옵소서.

2013. 5. 8
광복회장 박유철